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태 15,22)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 제르망 장 드로아스(1763-1788), 루브르 박물관, 파리, 프랑스

[제1독서] ..... 이사 56,1,6-7

[화답송] ..... 시편 67(66),2-3,5,6과 8  
(◎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제2독서] ..... 로마 11,13-15,29-3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복음] ..... 마태 15,21-28

##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21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22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23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24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25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26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 그림 묵상

#### 대단치 않은 것

갑자기 오셔서 차린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진수 성찬입니다.

소박한 상을 마주하고  
 따스함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운 건  
 많고 화려한 밥이 아닌  
 대단치 않지만  
 따스하고 포근한 밥입니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마태 15,28)

〈임의준 신부 / 가톨릭 신문〉

### 복음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주 활동 무대인 갈릴래아를 떠나시어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민족의 땅으로 가신 이유는 오늘 복음의 앞선 내용들을 짚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늘 나라에 대한 비유와 빵을 많게 하신 기적으로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마태 13,1-53; 14,13-21 참조) 드러내신 예수님께서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과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 주십니다(마태 14,22-36 참조). 그리고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셨습니다(마태 15,1-20 참조).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갈릴래아에서 이민족의 땅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없고 기적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위선자들 앞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민족 가나안 여인이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외쳤던 ‘다윗의 자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일컫는 호칭이었습니다. 나탄 예언자가 하느님의 집을 지으려던 다윗 임금에게, 희망의 구원자가 바로 그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는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작에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어야 할 신앙 고백이 이민족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예수님의 칭찬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입술로만 공경하는 위선이 아닌, 강아지에 비유하며 무시하시려는 예수님께 ‘강아지처럼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하는 여인의 간절한 믿음은 그분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구원에 대한 희망과 참된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강아지가 주워 먹을 부스러기만큼의 믿음이라도,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희망의 틈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박기석 사도 요한 신부)

성화 해설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마태 15,28)

- 가나안 여자의 지극한 믿음 -

화려한 건물이 보이는 성전 입구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깎지 낀 채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청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려는 듯이 한쪽 손을 내치고 있다.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노란 외투를 입은 베드로는 양팔을 벌리고 더욱 당혹해 하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다. 왼쪽에 있는 군중들도 다양한 자세를 취하며 이 광경을 흥미롭게 주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은 마르코 복음 7,24-30에 표현되어 있다.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마태 7,22-23).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절하셨다. 그러나 그녀는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며 애원하였다. 여기서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빵”은 구원을 뜻한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가나안 사람과 같은 이방인을 뜻한다.

가나안 여인은 마귀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그분 앞에 나온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무릎을 꿇고 거듭 거듭 주님께 사랑하는 딸의 치유를 위해 애원하였다. 사랑하는 딸을 고쳐서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여인의 강한 믿음이 애절한 몸짓에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부인의 지극한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서 선포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 제르망 장 드로아스



예수님께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간직했던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을 본당 사목을 하면서도 자주 만나곤 한다. 오래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할머니는 연로하여 성당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거행되는 병자 영성체 예식을 통해 주님을 모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흔 살을 바라보는 그분은 성체를 받아 모신 후에는 양손을 깎지 끼고 언제나 이런 말씀을 되풀이

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모두가 다 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성체 후에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할머니의 양손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어머니의 손처럼 거칠고 투박하였다. 그 손에는 이분이 걸었던 한평생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 힘든 삶을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분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그분의 소박한 신앙 고백은 병자 영성체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귓가를 맴돌고 있다. <정응모 신부, 아름다운 성화 아름다운 인생, 가톨릭신문>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신부

✦ 찬미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1년은 성 정 바오로 성당 공동체 창설 35주년과 본당 승격 25주년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본당 승격 25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지난날 우리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보다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로 영적 성장과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고자 준비하여 왔습니다.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의 해를 1년 앞두고 있는 올해 2020년은 본당 승격 25주년 준비의 해로 -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해 - 로 사목 목표를 설정하고 그동안 준비하였던 것을 바탕으로 하나씩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해가 되어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본당 승격 25주년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장단에 협조하여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앙에 바탕을 둔 영적인 기도를 통한 일치와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모든 일들을 기도에 바탕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당 승격 25주년 기도문을 바치며, 묵주기도 100만 단 봉헌 운동을 비롯해서 한마음 기도 시간, 성경필사, 성경통독, 성경공부를 강조하고 있으며, 가정 성화와 청소년의 신앙 증진 및 성소 계발을 위한 기도와 미사를 적극 권장하여 왔습니다.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미사와 감사축제미사, 피정과 강연회, 신자들의 친교와 화합을 위한 행사, 청소년 순례, 꼭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리노베이션, 본당 웹사이트 개편, 25주년 기념집 발간 등 다채로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였습니다. 그중 일부 성당 빔 프로젝터 설치는 이미 완료되어 잘 활용하고 있으며 본당 웹사이트 개편도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2명의 청년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 또한 25주년을 맞는 우리 공동체에 큰 결실을 맛보게 하는 선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당 승격 25주년을 1년 앞두고 최종 준비의 해 -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해 - 를 시작하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에 종식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당 승격 25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미, 신앙의 성숙, 사랑으로 일치된 공동체 건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들의 절실한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모임과 공동체 미사까지도 중단되었던 큰 위기에 직면하였지만 지금은 공동체 미사가 재개되어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길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교우들의 기도와 협조 덕분에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잘 견디어 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해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느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유혹에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할 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로마 8,35.37)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 본당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지난 몇 주 동안 두 신학생들은 2020-2021 교구 신학생 미사와 본당 미사 등에 참여했습니다. 이동한 다니엘은 8월 9일부터 Mount St. Mary's Seminary 신학생으로, 이효빈 바오로는 8월 16일부터 John Paul II Seminary 신학생으로 사제양성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기도와 후원으로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이클 (Michael F.Burbidge) 주교님과 함께



▲ 이동한 다니엘과 어머니



▲ 이효빈 바오로와 부모님



**성소후원**

봉헌하기 > 봉헌종류 - '성소후원' 선택 > Pay Now

#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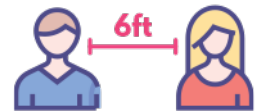
##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해 방역과 환기가 필요합니다.)



##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 1 2020년도 사목보고회

- 일시 : 8월 21일(금) 오후 8시
- 참석대상 : 회장단, 사도회 임원
- 문의 : 허진 세바스찬 총무 (703)376-1372

## 2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3 평일 미사 재개

- **평일 미사 시간**
  -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 수요일 : 오전 11시
  -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
  - \* **참여자 명단 작성** \* **발열 체크** \* **손 소독**
- 보다 안전하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5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6 유아세례 안내

-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정된 날에 합동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합니다.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7 2021년 본당 달력광고 접수

- 2021년도 본당 달력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703-968-3010)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 : \$600

## 성소후원회 공지사항

### 본당 성소를 위한 미사와 묵주기도 그리고 후원금 모금

- 저희 본당에서도 2020년 가을학기부터 두 명의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 양성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소후원회에서는 본당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해 교우 여러분들과 **미사 참여 (매달 둘째 주 금요일)**와 **묵주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한 후원회비와 후원금 모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오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성소 후원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연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산해 드립니다.)

### ▶ 온라인 봉헌 : 성당 홈페이지

**봉헌하기** > 봉헌종류 - '성소후원' 선택 > Pay Now

### ▶ 우편 봉헌 : 성당

체크 메모란에 **‘성소후원’** 명기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교황님의 **8월기도지향** **삶의 터전인 바다**

**“선원과 어부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바다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0주 주간: 예레 38-41, 야고 3**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8월 9일(연중 제19주일)

주일헌금	\$1,771.00
교무금	\$8,960.00
교무금(크레딧카드)	\$2,750.00
감사헌금	\$1,370.00
2차헌금	\$0
<b>합계</b>	<b>\$14,851.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8월 19일(수) 오전 6:15-6:45 | 8월 22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황창연 신부님의 성서특강 '강은 인류에게 선물'** (메소포타미아 문명 4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토크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20일(목) 오후 5:00-6:00

8월 21일(금) 저녁 8:00-9:00

8월 23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자신 겨안기 4A**
-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한국 첫 성모성심 봉헌지 수리치골 성지**

## 기도해 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고틀순(젼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수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이영민 (다윗), 한양수 (스테파노)